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 헌장 및 기소장

민간법정 헌장 \_\_\_\_\_ 2 page

공 소 장 \_\_\_\_\_ 5 page

노래악보(격문, 조선일보 유감) \_\_ 20 page

##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 민간법정 헌장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에 일제에 강점당하였고, 그 당시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분단과 독재 정권에 시달렸으며, 그러한 질곡은 20세기 내내 지속되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민족은 글과 얼은 물론 신체와 생명까지도 빼앗긴 채 고통과 한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했고, 8·15해방 이후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독재와 부패, 온갖 사회적 모순 속에 황폐화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함 없이 3·1운동, 항일민족해방투쟁, 4·19혁명, 5·18 민중항쟁, 6월 항쟁 등을 통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이제라도 그 질곡의 뿌리인 친일 반민족 행위를 규명하여 뒤틀린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희망과 도약의 새 역사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언론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며, 새 시대 새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족의 소망이 난관에 부딪혀 결국 좌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줄곧 민족과 역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친일 반민족 행위에 앞장서고,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 세력의 인맥으로 구성된 역대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을 저해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대표적인 언론 조선일보에 대하여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며 민족민주운동에 헌신하여온 각계 인사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모아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족해방투쟁의 전통 및 민주개혁과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참 언론의 지표를 제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법정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0월 11일 <2004년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을 채택한다.

### 제1조 [민간법정의 설립]

이 헌장 전문의 정신에 의거하여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법정')을 설립한다.

## 제2조 [재판관할권]

법정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
2. 8·15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선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
3. 기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 정기의 함양을 저해하며 민족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

## 제3조 [구성]

- ① 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한다.
- ②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은 다음 각 호의 점을 고려하여 법정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1. 민족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재판부는 판사 1명, 배심원단은 12명 내외, 검사단은 2명 내외, 서기단은 2명 등으로 구성한다.

## 제4조 [검사단]

- ① 검사단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주목하여 이 헌장의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조사, 기소, 공소 유지 및 판결집행을 책임진다.
- ②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기사·보도내용, 개인, 피해자, 사회단체나 그 밖의 출처에서 받은 정보를 기초하여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관련자와 피해자 및 증인에게 질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현장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 제5조 [서기단]

서기단은 이 법정추진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 법정의 행정과 사무를 책임진다.

## 제6조 [재판진행]

- ① 법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며,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 ② 법정에서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다.



### 제7조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 ① 재판부는 절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와 증거의 채택, 증인보호, 기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증 : 공문서, 사문서, 진술서·진술조서, 서명된 성명서, 일기, 편지, 메모 등 서면으로 된 증거와 기타 각 언론사의 기사·보도문 등 문서, 사진 기타 다른 시각 자료
  2. 증인 :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의 진술 또는 의견
  3. 기타 관련된 물리적·물질적 증거

### 제8조 [조선일보의 참여 보장]

- ① 법정은 조선일보나 그 대리인에게 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
- ② 조선일보가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선일보의 사정에 밝은 자 중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 제9조 [피해자와 증인의 참여와 보호]

- ① 법정은 피해자와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기소와 재판 과정에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② 법정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고소인 및 증인의 안전, 신체적·정신적 행복,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제10조 [판결]

- ①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로 평결한다. 다만, 그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② 판결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선고한다.
- ③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무죄 여부 및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과 성의 있는 노력
  2. 사죄
  3. 배상
  4. 명예회복조치
  5. 기타 이 법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
- ⑤ 이 법정추진위원회는 판결문을 역사적인 문서로서 보관하고, 그 사본을 각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한다.

### 제11조 [공소시효의 부적용]

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 공 소 장

〈본 문〉

###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다.

조선일보는 초창기 친일 자본가 단체 <대정실업친목회>의 주도 하에 예종석, 조진태 등 친일 행위로 치부한 반민족 분자들이 차례로 사장에 올라 신문을 경영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 4월 8일, 친일 매국노 송병준이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면서 더욱 심한 친일신문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1924년 9월 13일 신석우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한때 이상재, 안재홍, 조만식 등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조선일보의 경영이나 편집을 맡으면서 '조선 민중의 신문'이라는 표어를 내걸며 민족정신과 신념을 고수하려 노력하기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물러난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시책에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방응모가 1933년 3월에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부터 그 친일의 정도가 극심하였다.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는 '민간법정 헌장' 제2조 제1호의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본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 1.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보도

##### (1) 일본 왕실에 찬양하고 아부하는 보도

조선일보는 방응모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인 1933년 12월 24일에 이미 노골적으로 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아부하는 사실 <황태자 전하의 탄생>을 게재하였다. 이 사실에서 조선일보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건국 이래로 황실은 곧 일본 전민족의 대종가라는 신념이 있고, 더욱 명치천황폐하의 어우(御宇)에 이르러 일본이 일약하여 세계의 대국이 되매 일본국민의 황실을 존숭하는 정은 더욱 깊혀졌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황실중심의 국민주의가 최고조에 달하였음을 본다. 일본국민에 있어서서는 황실은 영국 기타의 황실과 달라서 혈통적 친근성과 종교적 존엄을 가지신다”라며 일본 왕실을 ‘일본 전민족의 대종가’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사설 말미에는 “새로 탄생하신 황태자전하께옵서 건전하게 자라시와 후일에 일본을 세계의 문화와 평화와 따라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큰 공헌을 하는 큰힘이 되도록 하시는 영주가 되시옵소서 하고 축원을 올린다”라고 왕세자의 출생을 축하하였다.

이렇게 1933년도에 이미 일본 왕실에 찬양하고 아부하는 사설을 게재하기 시작했던 조선일보의 행태는 1937년부터는 그 정도가 극심해졌다. 조선일보는 1937년부터 1940년 폐간되던 해까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 되면 1면 상단에 일왕 부처의 사진과 찬양 기사를 게재하며 일본 왕실에 충성을 맹세하였다.

조선일보는 1937년 4월 29일 조간 1면에서 ‘봉축천장가절(奉祝天長佳節)’이란 표제와 함께 일왕 부처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천장절제어예정(天長節際御豫定)’이란 일왕 생일 축하 행사 소개 기사를 실었고, 1937년 11월 3일 일본 명치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소위 ‘명치절(明治節)’에는 <금일(今日)이 명치절(明治節) 거행(舉行)할 봉축절차(奉祝切次)>란 축하 행사 소개 기사와 함께 일본 왕실에 충성을 맹세하는 강령인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序詞)>를 일본어로 게재하였다.

조선일보는 1938년 1월 1일 조간 1면에서 일왕 부처의 사진 및 일본 왕실의 문장인 국화문양을 큼지막하게 덧붙이며 <원단(元旦)·궁중(宮中)의 어의(御儀)>란 일왕실 신년하례식 소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와 함께 또다시 일왕실에 충성을 맹세하는 강령인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序詞)>를 일어로 게재하였다. 또한 1938년 4월 29일 조간 1면에서도 <봉축(奉祝)>이란 큰 글자를 덧붙이며 일왕 부처의 사진과 <봉축천장가절(奉祝天長佳節)>이란 일왕 생일 찬양 사설을 게재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1월 1일 석간 1면에서 <천황폐하(天皇陛下)의 어위덕(御威德)>이란 제목과 함께 국화 문양이 곁들인 일왕 부처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1939년 2월 11일에도 초대 신무왕(神武王)이 즉위한 날이라 하여 일본 건국일로 기념하는 소위 ‘기원절(紀元節)’이라 하여 조선일보는 사설 <기원절(紀元節)>을 게재, 일왕실을 찬양하였는데,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무릇 일본정신은 저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개인주의와도 다르고 전체가 잇슨 후 개체가 잇다는 파씨즘과도 다르다. 일본 정신은 일본 독특한 국민성, 국민 기질에 의한 것으로서 타(他)의 모방(模倣) 우(又)는 추월(追越)을 불허(不許)하는 바이니 내선일체(內鮮一體), 일만지(日滿支) 협조 등은 다 서양류의 식민지사상과 다르다. 학제 개혁,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그 현현(顯現)의 일례라 할 것이다”면서 일왕 숭배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칭송하고, 조선의 젊은이를 일체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한 조치인 지원병제도를 찬양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4월 29일 사설, <봉축천장절(奉祝天長節)>에서 “……춘풍이 태탕하고 만화가 방창한 이 시절에 다시 한 번 천장가절(天長佳節)을 맞이함은 억조신서(億兆臣庶)가 경축에 불감(不堪)할 바이다. 성상 폐하께옵서는 옥체가 유강하시다니 실로 성황성공(誠惶誠恐) 동경



동하(同慶同賀)할 바이다. 일년일도 이 반가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흥원한 은(恩)과 광대한 인(仁)에 새로운 감격과 경행이 깊어짐을 깨달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적성봉공 충과 의를 다하여 일념보국의 확고한 결심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당시 일본 국왕 히로히토의 생일(천장절)을 맞아 그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실으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어미인 ‘옴’자를 사용하였고, ‘황공’도 모자라 ‘성황성공’이라 하며, ‘경하’도 부족해 ‘동경동하’라 하고, ‘충성’이 아니라 ‘극충극성(克忠克誠)’이라 하며, 일왕을 ‘지존(至尊)’이라고까지 부르는 등 일왕을 적극 찬양하고 협력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1월 1일 조간 1면에서 <천황폐하(天皇陛下)의 어위덕(御威德)>이란 제목과 함께 일왕 부처의 사진을 실는가 하면, 제호 위에 일장기를 게재하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1940년 2월 11일 조간 1면에서는 <봉축(奉祝) 황기이천육백년(皇紀二千六百年) 기원절(紀元節)>이란 사설을 게재하였는데, 이 기사에서도 조선일보 “양춘이 내복하고 만상이 활발하여 서기가 팔방에 충만한 이날에 황기 이천육백년의 기원절을 마지하는 것은 대화민족 전체의 감격과 능행이 무상한 바이다”, “때마침 지나 사변으로 인한 흥아의 성업이 달성되려는 도중에서 이날을 맞는 것은 신무천황께옵서 망국홍유로 승시하옵신 육합일도, 팔굉일우의 대이상이 동아천지에 완전 실현할 촌보전사로 이것을 상기할 때에 이 황기 이천육백년의 기원절은 과연 감격과 환희의 경절이다”, “대화민족은 신무천황께옵서… 국란이 잇슬때마다 그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타개극복 하여왔다. … 이 일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황기 이천육백년 기원절을 봉축하는 동시에 이 국민적 자각과 기대를 굳게 하여야 할 것이다” 운운하며 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조선민중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조선일보는 폐간 4개월 전인 1940년 4월 30일에도 일왕의 생일을 맞아 “황공하옵게도 천황폐하께옵서는 이날에 제39회 어탄신을 맞이하옵시사……신자(臣子)의 충심으로 흥아성업도 황위하에 일단은 진척을 보아 선린의 새 지나 국민정부가 환도의 경축을 하는 이때에 이 아름다운 탄신을 맞이한 것은 더욱 광휘 있고 경축에 불감할 바이다”라고 보도하며, 그 때까지 ‘신민(臣民)’이라 표현했던 조선민중을 더 나아가 ‘신자(臣子)’라고 지칭, 일거에 일왕의 자식으로 표현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최정점이자 상징인 일본 국왕과 왕실을 찬양, 미화하고 일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는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 (2)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조선 민중들을 적극 동원한 보도

조선일보는 일제가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대륙을 침략하자, 일본군을 ‘아군’ 또는 ‘황군’으로 표현하고, 침략 전쟁의 수행을 위해 조선을 후방 병참기지로, 조선 민중은 일제 침략전쟁의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도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7년 8월 2일 사설, <총후의 임무-조선군사후원연맹이 목적>에서 “제국신민으



로서 응분의 의무와 성의를 다하고자 시국대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는 중 조선군사후원연맹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황군의 사기를 고무 격려하는 것이 이 후원연맹의 중요 임무……요는 국민 각 개인은 각자 힘자라는 데까지를 목표로 하고 응분의 성의를 다하는데 있을 것이다. 있는 이는 있는 이대로 기만원을 내는 것도 총후의 임무요, 출정 장병을 향하여 위로 고무 격려의 편지 한 장 보내는 것도 총후의 임무일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조선 민중들로 하여금 일제의 침략 전쟁을 후원토록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937년 8월 12일 사고(社告)를 통하여 조선일보사와 사원들이 술선해서 현금한 사실을 밝히면서 “북지사변(중일전쟁) 발발 이래 민간의 국방헌금과 군대위문금은 날로 답지하는 형편인데, 본사에서는 일반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접수 전달하려 하오니 강호 유지는 많이 분발하심을 바랍니다”라고 보도하면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 민중을 동원하는 보도나 사실에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친일행위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937년 12월 12일 보도에서 “황군의 신속한 행동으로 단번에 지나 수도 남경을 무찌르게 되었다는 전선 뉴스가 보도된 지 불과 수일에 이제 최후의 공성으로 단발마적 저항을 계속하던 남경성도 10일 밤으로 완전 함락을 보게 되었다.……그래서 남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적으로 국민환호의 대상이 되어 그 동안 총독부에서 각 도에 미리부터 전달한 바에 의하여 준비가 진행되어 있던 ‘남경함락축하제’는 이제 전 조선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명 12일에 일제히 경성을 비롯한 전 조선 각 주요 도시와 군·면·촌을 통하여 남경함락 전승축하 행사로 학생도들의 기행렬, 제등행렬, 봉고제 등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약 30만 명을 학살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사로 기록된 일제의 난징 점령 및 난징 학살을 찬양·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8년 1월 1일 조간에 <조선(朝鮮) 사명(史命) 중대(重大) 각오(覺悟)를 새롭게 하라>는 제목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의 기고문을 게재,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 민중을 내모는 데 협조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한 1938년 1월 1일 신년호 기이(其二)에서는 <전시체제 하의 정치·군사·행정... 전쟁의 목적은 승리! 승리엔 무엇이 필요? 국가 총동원적 총후의 진영>이란 기사를 게재,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민중을 더욱 억압·착취·수탈의 길로 총동원하려는 일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보도를 하였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전쟁의 목적은 승리에 있다. 전쟁을 시작한 이상 승리하지 안하면 안된다”, “전시체제의 편성이라 함은 이 국가적 정력 즉 그 국민이 갖고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장 유효하게 발동할수 있도록 편성한다는 말이다... 이 중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적 정치의식이 필요하고 이 통일적 정치의식에 따라서 즉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전 기구가 중앙집권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면한 난국의 대책으로 신속한 정책적 단안을 필요로 하는 전시에 있어서서는 대과가 업는 한 정책의 신속결정이 절대로 필요하니만치 장황한 이론투쟁은 금물이다”라고 말하여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전 사회를 병영과도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또한 “전쟁에 필요한 경제력이란 돈과 물건, 즉 자금과 물자에... 그러므로 자금을 풍부히 하고 물자를 만홍히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나 전시에는 윤택히 한다든가 풍부히 한다는 것보다도 필요가 적은 곳에 금전과 물자를 소비치 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면서 “정부당국에서도 ‘본격적 전쟁은 이제



로부터'라고 계고하였을 뿐 아니라 내외 정세에 심상치 안흔 점이 만흐니만치 신년이 되드래도 초비상시대처책은 거의 강화될 것이므로 일반 민중은 전시체제하의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동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차에 수용할 준비와 각오가 잊서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조선 민중의 호응과 내뺨을 요구하였다.

조선일보는 1938년 6월 15일 육군지원병훈련소 개소를 맞아 사설과 1면 머릿기사로, 일제가 1938년 4월경 조선 청년을 일제 침략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육군특별지원병제'에 대하여 ".....조선통치사의 한 신기원을 이룩한 것.....미나미 총독의 일대 영단 정책하에 조선에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것에 대하여 이미 본 란에 수차 우리의 찬의를 표한 바가 있거니와.....황국신민화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라.....장래 국가의 간성으로 황국에 대하여 갈충진성(竭忠盡誠)을 다할 것.....그래서 국방상 완전히 신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중국 침략 한 돌을 맞은 1938년 7월 7일 사설, 머릿기사 등 전 지면에서 "열철일타의 일본군이 총후국민의 위력과 같이 동아의 신질서 건설의 발단을 만든 국민 감격의 기념일인 7월 7일을 맞이하여 전 조선의 도시 농산 어촌에 들끓는 총후 황국신민의.....물적 심적 총동원의 체제는 귀한 호국의 명령에 바치는 조의와 출정 장병의 신고를 생각해 하는 뜻깊은 여러 가지 행사"라고 보도하여 일제의 침략 전쟁을 적극 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나사변(支那事變) 일주년(一周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제국은 만주국이 건설된 이래 장차 일만지(日滿支) 삼국의 공존 기책을 위하여 장정권에 제안한바 잇섯건만 장정권은 소허도 제국의 진의를 이해치 못하고 도리어 적대하여 오매 동아의 평화를 위하여 소련의 적화침략을 배제키 위하여 제국의 황도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장정권을 그대로 둘수업게 된터인즉 금번 사변에 잇서 제국의 태도는 실로 부득이한 일이다"라며 일제의 중국 침략을 '동아의 평화와 소련의 적화침략을 막고 일본의 황도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화하고, 중일전쟁의 발발 책임을 중국 정부에 돌리는 주장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번의 지나사변은 제국에 잇서 파괴가 아니요 건설이라는 것이다. 파괴는 단기로써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건설은 결코 단기로써 가능할 것이 아닌만큼 우리는 금번 사변이 장기로 끌 것을 각오하는 동시 그 장기건설을 달성하기까지 꾸준한 인내력을 요하게 된다"라며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한 야만적인 파괴·학살 행위를 '건설'로 미화하면서 조선 민중에게 침략전쟁 수행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꾸준한 인내력'을 요구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8년 11월 4일 석간에서 <동아 신질서의 건설... 제국 불퇴전의 태도성명>이란 사설을 통해 일제의 중국침략을 미화하고 조선민중의 적극 동참을 요구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이상으로써 분명한 바와 가티 제국의 차거는 지나의 영토적 점령에 잇거나 약자 압박에 잇는 것이 아니라 용공항일을 일삼아 일만지(日滿支) 협력을 거부하는 국민정부의 마원에 잇다"라면서 중일전쟁 발발의 책임을 중국정부에 돌렸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국민정부의 수뇌부로 하여금 종래의 인식을 달리하게 하고 열국으로 하여금 그 무모를 늦기게 하는 것이 제국의 외교적 수완에 잇거니와 그리하여 실력을 배위로 한 군사적 행동을... 타방정치가, 외교가 내지 국민 전부가 외교가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 미몽을 깨치게 하지 안흐면 안된다. 이 동아 신질서를 건설하라는 제국성명의 요령이다" 라면서 조선 민중 전부가 소위 '동아신질서'를 건설



하기 위한 일제의 중국 침략을 돕기 위한 '외교관' 노릇을 해야 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1월 5일 신년호 기십이(其十二)에서 <대중생활을 전시개편... 참을수 있는 데까지는 참아가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민중의 내핍 생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번의 제국의회에 제출하려는 대장성의 증세안에는 법인이나 개인을 통하여 여태까지 시행하여오든 그 세액보다 이할 내지 삼할 정도의 증세를 하기로 꾸며있다. 때가 전시인지라 국민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가야 하겠고 또한 부과하는 세금도 또박또박 무려야 할 일이나 각종 물건값이 작구 비싸서 가는 관계로 개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이중으로 무겁게 될 것을 잘 인식하여 생활 정도를 종래보다 훨씬 나추어야만 장기전에 견디어 갈 수 있게 될 터이다”라며 조선민중의 내핍생활을 종용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3월 10일 조간 1면에 게재된 사설 <육군기념일에 제하야>에서 “성전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에는 아직도 허다한 파란곡절이 만홀거이고 보매 국민일반은 거국일치만이 승리를 좌우한다는 생생한 교훈을 주는 이 기념일을 계기로 더욱 혼연일치가 되어 성전기념목적달성에 매진치 안흐면 안될것이다”라면서 조선민중이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거국일치', '혼연일치' 할 것을 주장하였고 1939년 7월 7일 조간 1면에 게재된 사설 <지나사변 이주년>에서도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결코 간과를 거두지 안홀 결심을 한 우리로서는 과거 이년동안의 혁혁한 전과에 ... 동시에 국가 총력발휘와 국민정신 앙양에 협력하여 상하군민일치, 과업달성에 매진하여야 한다. 총후 국민은 모름지기 이 기념일을 다가치 과거를 감사하고 동아신질서 건설에 대한 불퇴전 결의를 새로이 함으로써 광의집계 마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언명, 조선민중이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 협력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940년 3월 10일 조간 1면에 게재된 사설 <육군기념일에 제하여... 황군의 무운장구를 축함>에서도 조선일보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을 “제국은 단호히 기하여로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반대하여 러시아에 선전을 포고하였스니 이것이 곧 일로전쟁이다... 삼월 십일 봉천대회전에서 최후적 승리를 전하여 로군을 극동으로부터 완전히 구축하고 전동양을 백인의 마수로부터 해방케하였다”라고 기술, '러시아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동양을 해방한 전쟁'이라 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황군의 사명은 일층 중대하고 육군기념일의 의미는 일층 깊다. 즉 금차 사변의 성불성은 황국홍폐 될뿐 아니라 동양의 성에 이에 말렸나니 이 사변이 완전 처리되는 날엔 황군의 광휘는 더욱 뚜렷하고 제국의 지위는 그야말로 만대에 진개할 것이다. 성전 사년에 사백여주 황군의 지휘하에 있고 점령지구엔 신정권의 조광이 각각으로 ... 동시에 동양에는 동양인의 동양이 건설될날이 가까운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의의기쁜 육군기념일에 제회하여 동아신질서의 건설이 앙양 진행될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광휘잇는 황군의 무운이 장구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라고 기술, '동양을 지배하려는 백인을 물리쳐 동아신질서를 건설하는 황군의 무운이 장구하기를 기원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나아가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을 후방 병참기지화하고 조선 민중을 지원자로 만들고 또 조선 청년을 일제의 전쟁 도구로 나설 것을 선동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



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 (3)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옹호하는 보도

조선일보는 일제가 항일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의 하나로써 수많은 민족해방투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적극 옹호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6년 12월 13일 사설을 통하여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사회개조를 목적으로 한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사회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운용을 잘 못하면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상운동에 도발적 반동 기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사유한다.....”라고 보도하여 이 법령의 사회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일제에게 ‘운용’을 잘 하여 독립운동의 기운을 조성할 빌미를 만들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의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적극 찬양, 옹호하고 민족해방투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 (4) 소년조선일보에 드러난 친일 반민족 보도

조선일보는 부록인 <소년조선일보>를 통하여 나이 어린 조선 어린이에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보도를 하는 등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5월 28일 소년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기사 <황국의 흥폐는 이맘에 달렸다... 설흔 네들째 마지하는 해군기념일>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1월 7일 소년조선일보 2면 기사 <황기 이천육백년에 전국적으로 기념행사>에서 “여러분도 학교에서나 혹은 책에서 배워 잘 알지마는 신무천황은 천조대신의 어손자되시는 경정지존의 증손되시는 어른이옵니다... 그런데 금년은 특히 황기 이천육백년을 위하여 전국민적으로 굉장한 행사가 잇기로 되었습니다. 지나사변 제 사년을 마지하여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라는 이때, 금년이야말로 가장 의미기쁜 새해라고 하겠습니다”라며 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2월 11일 소년조선일보 2면 기사 <오늘은 기원절 정성으로 봉축하자>에서 “금년은 더욱 황기 이천육백년으로 지나 사변이 일어난 제 사년을 마지하여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일층 더 큰 각오와 가르침을 바다야 할 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해를 기념하는 각 가지 행사가 잇거니와 더욱 오늘은 우리가 다가치 인황 제일대이신 신무천황

의 성덕을 노피 우러러 받들날입니다”라면서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 왕실과 일제의 침략전쟁을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940년 4월 28일 소년조선일보 기사 <황후 폐하께옵서 상병에게 화초를 어하시>에서 “황후 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新宿御苑)에서 기르옵신 화초씨를 내리셨습니다. 씨앗은 나팔꽃 공작꽃 같은 것 외에 마흔 몇 가지이고 또 ‘달리아’같은 구근(球根)도 십여종이라 합니다. 어(御)인자하심에 감격해서 삼도군사보호원 부총재는 지난 십구일에 참내 씨앗과 구근을 배수하고 각 요양소에 광영을 분배하였다 합니다”라고 보도하여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선전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기치를 들고 일어의 상용화를 강요한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1939년 1월 29일 소년조선일보 3면, 2월 12일 소년조선일보 3면, 3월 12일 소년조선일보 3면, 4월 23일 소년조선일보 3면, 4월 30일 소년조선일보 3면, 5월 28일 소년조선일보 3면, 11월 5일 소년조선일보 3면, 1940년 1월 7일 소년조선일보 3면, 1월 14일 3면, 1월 21일 3면, 2월 4일 3면, 2월 11일 3면 등에서 고정코너인 ‘학습페이지’란에 일본어 학습란을 게재,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국어’로 공부하도록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나이 어린 조선 어린이에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또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도록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 (5) 노골적인 친일광고 게재

조선일보는 친일 보도 이외에도 광고란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등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祈) 황군무운장구(皇軍武運長久)’(1937. 10. 13), ‘축(祝) 남경함락(南京陷落)’(1937. 12. 22), ‘봉축(奉祝) 명치절(明治節)’(1939. 11. 3) 등의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며 노골적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를 찬양하였다.

조선일보는 중일전쟁 발발 2개월 후인 1937년 9월 7일자에 어린이들이 일장기와 총 및 일본도를 들고 전쟁놀이를 하는 그림과 함께 ‘총후의 책무 국가를 위하여’라는 문구의 광고를, 조선일보 6000호 기념호인 1938년 3월 1일자에 ‘국민정신총동원’이라는 문구의 인단(仁丹) 광고를, 1938년 6월 8일자에 ‘장기전에 준비하자’는 문구의 모리나가 건빵의 광고를, 1938년 11월 16일자에 ‘중지(中支)에도 남지(南支)에도 황군(皇軍)의 기(旗)빨이 휘날리게’라는 문구의 맨소레담 광고를 게재하는 등 약 340여 회의 친일광고를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전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광고는 신문의 전 지면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 (6) 기타 친일 반민족 보도

이 외에도 조선일보는 무고한 민중을 착취하고 학살하는 일제의 중국 침략에 적극 협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침략적이고 이기적인 보도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939년 1월 1일 신년호 기이(其二)에 게재된 <조선인의 등장, 대륙무역무대... 우리 상권을 장성 너머로... 기동 무역이래의 조선인진출... 대북지 무역 진흥은 일석 이조>라는 기사에서 “동아의 정세는 신국면이 전개되었다. <동아신질서건설>의 한 쪽을 걸머지고 나아가야 조선인의 경제도 변해야 할 것이다. 전시하 양급만 되어서도 안될 것이요 대륙과 연해잇스면서도 비교적 진출이 적든 우리 이러타고 내세울 것이 업는 우리는 신시대에 대처한 비상한 각오가 잇서야 할 것이다. 손바닥만한 조선 안에서 바장일 때가 아니오 대륙무역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조선 민중에게 중국 민중을 착취하는 일제 침략자의 하수인이 되자고 선동하는 보도를 하였다. 또한 1939년 1월 1일 신년호 기삼(其三)에 게재된 <조선인의 대륙진군보... 만주로! 만주로! 이주 개척 일세기에 무변 황야를 옥답화... 팔십만 재만동포, 역사적 위업>에서 조선일보는 조선 민중들이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땅을 빼앗겨 만주로 쫓겨간 것을 가리켜 마치의식적으로 ‘무변 황야를 옥답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세우기 위해 이주한 것처럼 미화한 뒤, “역사에 위대한 전환선을 긋고 잇는 지나사변도 어느듯 제 이년을 뒤로 보내고 다시 삼년재 새해를 마지하였다. 이미 해외에 진출한 동포는 물론, 현재 국내에 잇는 동포도 원대한 포부와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신춘과 함께 약동하여야 한다. 유구한 세월에 살찌고 기름져서 개척자를 기대리는 남북만주의 광막한 토지와 천고에 고요히 잠드러잇는 남북지나의 무진장의 지하자원은 신춘과 함께 우리를 손짓하여 부른다”라며 조선 민중에게 고향을 떠나 일제 침략자의 하수인이 되어 중국 민중을 착취하는 일을 거들자고 한 것이다. 더불어 1940년 1월 4일 신년호 기십이(其十二)에 게재된 <만주, 지나 대륙으로 상권진출의 지침... 그 방법은? 현지 사정은?>에서도 “금일이 환경은 그 당시와는 천양의 판이 잇스나 어쨌든 이들의 뒤를 이어 협동체건설이란 신흥, 고매한 기백을 가지고 선진이 남겨노흔 명예와 불명예를 혼합하면서 대륙으로 대륙으로 진출하지 안호면 안될 것이다”라고 운운하며 조선 민중이 일제 침략자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이른바 ‘동아협동체건설’이란 일제의 침략전쟁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조선 민중이 일제의 침략대상이 된 다른 나라 민중들을 착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조선 민중을 일본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끌어들이려는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 (7) 친일 반민족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자화자찬

조선일보는 1939년 4월 1일자 조선일보사보 제9호 3면에 게재된 <본사의 빛나는 신년호... 각

지 신년호 비판회 개최>란 기사에서 “본사에서는 일월 구일 오후 사시 이십분부터 신년 제일회 정례 편집국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본보가 각지의 금년 신년호에 대한 비교 비판을 시하였다. 그 결과 대체에 잇서 금년 신년호는 본보가 제 타지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하였다는 결론을 어덧는데 첫째 본보는 신년호 전체의 목표가 확연하여 모든 문제가 언제나 방금 목전에 절박된 현실인 제국의 대륙 정책을 중심으로 하였고 내용에 잇서서도 비교적 정선된 느낌이 잇섰다. 그리고 기타 편집기술로나 사진과 인쇄의 선명한 점으로나 또 교정까지도 비교적 잘되었다는 점에서 단연 타지를 압도할만하고 또 품격상으로 보드래도 과연 대신문의 풍도를 여실히 나타나여 실로 본사 적년의 솜씨를 이번 신년호에 발휘한 느낌을 가지게 한것였다”라고 언명했다. 그리고 기사 옆에는 동아일보, 경성일보, 매일신보 등 당시 서울에서 발행된 종합일간지와 조선일보를 비교하는 도표를 첨부했다.

그런데 1939년 조선일보의 신년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면에 일왕 부처의 사진을 게재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 민중이 적극 협력할 것을 주장한 내용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런 친일 반민족 보도 내용으로 도배한 신년호가 동아일보는 물론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 매일신보와 비교해 보아도 우수하다고 조선일보는 자평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스스로 친일 반민족 언론지로서 적극 활동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조한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 2. 친일 반민족 단체 가입 및 각종 친일동원행사 주최

### (1)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의 결성

조선일보는 1938년 7월 7일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 정책협력을 가장 큰 업무로 삼고 내선일체를 내세워 증산운동·공출·학도병 지원·폐품수집·일본어강습 등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인에게 대륙침략정책을 선전, 선동하고 민중생활 전반을 통제한 단체조선민중동원 및 통제조직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직되자 1938년 7월 8일 석간 2면에 게재된 기사 <기념! 지나사변 일주년...>에서 “특히 국민운동의 유기적 조직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탄생은 국책선에 따라 장기전시하에 대응하는 이천이백만민중의 힘찬 보조로 되어 <사변해결의 열쇠는 안에있다>라는 결의로 신념을 굳게하며 내선일체 거국일치의 장엄한 전진이 전개되었다”, “국민치고 누구나 불붙는 애국심을 가슴기피가지고 잇지 안흔자 업슴은 물론이나 이러한 애국의 적성을 통합하여써 이것을 조직하는 방도가 업다면 거기에는 무통제한 개인또는 단체의 군림이 잇슬뿐 아무러한 유기적 전체로써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업게된다는 취지에서 애국심의 완전공고한 조직의 창조를 목표로하고 이러서게 되는 것이 이연맹이니만치 식장은 진실로 반도미증유의 상황을 이루어 남녀노소를 불문코 부내 칠백여의 단체를 비롯하여 개인참관자 등 무려 오만을 헤아리게 되어 넓으나 넓은 경기장 스탠드를 덮는 상황이었다”, “이리해서 연맹이사 윤치호 씨의 발성으로 “천황폐하만세”를 삼창하였는데 그 소래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식은 국기 강하로써 성황리에 맞추었다. 아 - 우리들의 연맹 우리의 혼의 집단은 사변 일주년 기념일을 택해서 이에 그 역사적 탄생을 본 것이다” 운운하며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친일·반민족 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하 '정동연맹')에 가입하기까지 했다. '정동연맹'의 발기인 및 역원으로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등이 참여하였음은 물론, 조선일보 자체도 '정동연맹' 하부조직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이하 조선일보 연맹)을 1939년 2월 11일 조직, '정동연맹'에 가입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939년 4월 1일 조선일보사보 제9호 5면에 게재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 결성>이란 기사에서는 조선일보의 '정동연맹' 가입 사실을 "본사에서서는 이월 삼십일의 기원가절(일본 건국기념일)을 기하여 오전 십시 본사 대강당에서 기원절 축하식에 뒤이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의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전원 이백칠십일명을 십사반으로 편성하고 각반에는 반장을 두었는데 동일 오후 이시 본사주최 편집국장 각반장은 조선신궁에 참배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 및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 결성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 (2) 일본 제국주의 상징 기념일 축하행사 거행

조선일보는 1939년 2월 11일 소위 '기원절(紀元節)'(일본의 건국기념일) 축하식을 당일 오전 10시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거행하였다. 또한 1939년 7월 7일에는 소위 '지나사변 2주년 기념식'을 오전 9시 30분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전 종업원이 모인 가운데 1) 국가합창(일본국가 기미가요 합창), 2) 동방요배(일왕이 사는 곳을 향한 궁성요배), 3) 전사장병목도, 4) 황국신민서사 낭독, 5) 식사, 6) 천황폐하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거행하였다.

특히 소위 '지나사변 2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일보 주필 이훈구는 "오늘이 지나사변기념일인 것은 일본제국신민으로서 한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업습니다 또 이날을 기념하는 의의가 및국민의 각오할바는 내각총리대신의 말씀 조선총독의 말씀 조선군사령관의 말씀 기타 요로당국자의 발표한 말씀으로 제군이 다 잘알아서 기피복?하고 잇스므로 본인이 이곳에서 중복수행할 필요를 느끼지 안습니다. 또 본사에서서는 이날의 기념사설로써 총후이천삼백만민중에게 고한바가 잇스즉 제군은 물론 거사일치로 본사취의의 현현에 힘쓸것이올시다 한가지 더욱 이계체에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총후이천삼백만의 일인으로 다각기 맞든 직무를 성심성의로써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농사하는 사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업하는 사람도 최선의 주의를 다하고 기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 직무에 충실을 다하는 것이 즉 총후의 임무로 이와가치 하는 것은 시국추진에 위대한힘이 될것이요 사변목적달성에 절대의 공헌이 될 것이외다. 우리는 보도기관에 직무를 가지고 잇스즉 다 각기 자기 마튼바의 직무에 충실하여서 부단의 노력과 최선의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외다. 이와가치 하는 것은 국가에 보답하고 ... 조위하는 가장조흔 소이가 될 것이외다. 이날이 시간에 산조의 목도와 아울러 이점을 명기하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일보사 직원들이 적극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일본제국주의 상징 기념일 축하행사 거행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 (3) 각종 친일동원 행사 주최

조선일보는 일본제국주의 정책협력을 통해 조선민중을 일본의 침략전쟁에 내몰기 위한 각종 친일동원 행사도 여러 번 주최하였다.

조선일보는 1939년 3월 9일, 소위 일본 '육군기념일'(3월 10일)을 맞이하여 용산에 주둔한 일본군 병영에서 일제 군국주의의 위력을 목도하고 이를 통해 침략전쟁 협조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견학단을 모집, 방문케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2월 10일에는 소위 '기원절'(일본 건국기념일)을 맞아 조선일보 주최로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황기 이천육백년 기념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는 <지나사변과 국민의 각오>란 주제로 조선주둔 일본군 참모 히다준삼(喜多俊三) 소좌,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하여>란 주제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전무이사 정교원(鄭僑源), <사변하의 조선경제>란 주제로 경성제국대학 교수 영목무웅(鈴木武雄), <국가경제와 개인경제>란 주제로 조선은행 이사 횡수옹(橫瀨守雄) 등을 초빙,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민중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을 위한 자리였다. 조선일보는 개최 전 자사 지면을 통해 청중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했음은 물론, 행사 이후에도 강연 내용에 대하여 1940년 2월 13일 제2석간 4면 <황기 이천육백년 기념 대강연회>나 14일 조간 4면 <황기 이천육백년 기념 대강연회... 국가경제와 개입경제>로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3월 9일, 11일 소위 일본 '육군기념일'(3월 10일)을 맞이하여 용산에 주둔한 일본군 병영에서 일제 군국주의의 위력을 목도하고 이를 통해 침략전쟁 협조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견학단을 모집, 남녀 각 100명이 방문케 하였다. 이러한 견학단 모집을 위해 조선일보는 1940년 2월 26일 석간 2면, 1940년 2월 27일 조간 2면 등에 '용산병영 견학단 모집'이란 제목으로 광고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40년 7월 5일에는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 매일신보 등 다른 5개 신문사와 함께 공동으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의사당) 대강당에서 적성국가격양(敵性國家擊壤)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에 방해가 되는 영국, 미국 등 소위 '적성국가'를 규탄하고 비방하며 독일, 이탈리아 등 파시스트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역설하는 군중 선동을 하였다. 이 집회에서는 "지나사변의 완수를 방해하는 적성원장(敵性援蔣) 제삼국의 격양에 전력을 다하여 세계적 일대변혁에 대응하여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자주독왕(自主獨往), 일독이추축(日獨伊樞軸)을 강화하고 다시 남진(南進) 정책을 관철하여 썬 동야 백년의 대계를 확립하련다. 우(右) 결의함"이라는 결의문 및 미내(米內) 수상 기타 요로에 보내는 전보문으로서 "아(我) 조선 이천 삼백만 민중은 총궐기하여 적성 국가 격양국민대회를 열고 지나사변 삼주년을 기하여 사변 완수를 위해 단호 원장(援蔣) 제국(諸國)을 격멸하고 동야 신질서 확립에 매진할 결의를 굳게 한다. 잘 급변하고 있는 세계 신정세에 처하여 비약 일변 선처하기를 절망한다"는 문안을 가결한 외에 상기



결의문 및 전보문과 동지(同旨)인 대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친일동원 행사 개최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이다.

### 3. 조광의 친일 반민족 행위

조선일보는 폐간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창간하고 분사한 월간지 『조광(朝光)』을 통하여 친일 반민족 보도 행위를 일삼았다.

조선일보 폐간 직후인 1940년 10월호에서 『조광(朝光)』은 일제 조선통치 30년을 기념하면서 “광고무비(曠古無比)한 시국하 광휘 있는 황기(皇紀) 2600년과 함께 금 10월 1일로써 시정(한일 합방)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다. 회고하건대 지금부터 만 30년 전 동아의 시국은 실로 난마와 같이 흩어져 구한국의 운명이 위급존망의 추에 당하였던 명치 43년 8월 22일 일한 양국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하고……데라우치 총독은 대본을 정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30년 동안 7대에 이르는 총독들은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색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 조선건설을 결실 시켰다……2300만 반도 민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의 실(實)을 거하여 황국신민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려깊은 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각자 자기의 시국 인식을 반성하고 시국의 장래를 투명하게 관찰하여 일층 각오를 굳게 하고 또 일단의 노력을 더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시책에 적극 옹호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 1940년 11월호에서는 창간 다섯 돌을 맞아, “이 역사적 대변혁기에 그때 그때 본지에 허여된 직책을 다하기에 미력을 다해왔다”고 자평하면서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일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향하여 이 국책과 신문화 정책에 따라 시국을 일신시키는 데 일단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시책에 적극 옹호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은 1941년 1월호에서부터 이전에 270면으로 인쇄되었던 것에서 380~400면으로 증면되었다. 전시 용지난 속에서도 증면된 『조광』 1941년 1월호는 “서기 넘치는 신년을 맞이하여 천황 폐하, 황후 폐하의 성수무강하옵시기를 충심으로 비옵는 동시에 황태자 전하, 의궁 전하, 희궁 요궁 순궁 천궁 사내친왕 전하께옵서도 어견강하옵시기를 삼가 비는 바입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 1941년 2월호 사설에서 “내 손으로 지은 쌀을 내 마음대로 소비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제라면 내 손으로 지은 쌀, 내 자본으로 만든 물건을 모두 들어 나라에 바치고, 그 처분을 바라는 것이 신체제요, 총력운동이요, 또 신절을 다하는 소이이기도 하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1941년 9, 10월호부터 일본어로 된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 1942년 3

월호에는 전체 지면 중 50면 내외를 일어 기사로 확충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 1943년 6월호에서 '해군특별병 지원제도의 광영'이라는 보도를, 1943년 8월호에서는 '징병제 실시에 감사드린다'는 보도를, 1944년 8월호에서는 "조선인의 일본어 해독률 36%는 대만의 일본어 해독자 6할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진 것"이라고 개탄하며 "일본 정신 체득을 위해서 국어(일본어)가 각 가정에까지 침투되도록 전 사회적으로 일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조광』 1941년 1월호에 '축(祝)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신춘(新春)'이라는 문구의 인단 광고를, 1942년 2월호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일억일심(一億一心) 총동원' 광고를, 태평양전쟁 발발로 징병제가 실시되자 1943년 6월호 및 7월호에 '축(祝) 징병령시행' 문구의 광고를, 1944년 5월호에 '싸우는 여성은 강하다'는 문구의 광고 등 70여 회에 걸친 침략 전쟁을 선동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를 찬양하였다.

조선일보의 『조광』을 통한 위와 같은 보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악랄한 정책을 펼 때 조선 민중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시책을 악의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으로써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이다.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검사단

검사\_ 장병화(민족문제연구소 이사)

검사\_ 조정환(변호사)

검사\_ 김동민(조반연 대표, 교수)